

임상간호사들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성 미 혜**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대상자와 간호사의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대상자가 받는 간호는 간호사가 간호활동을 어떠한 가치기준에 의해 수행하는가에 달려있으므로, 간호사는 간호이념으로서 인간생명을 존중하고 인류애를 실천하며 확고한 직업윤리의식 내지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치관은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핵적 개념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평가의 기준을 제공하여 행동방향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 또한 동기로서 작용한다(정범모, 1984). 이러한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행위의 지시에 있다. 그리고 행위가 가진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삶의 과정에서 봉착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다. 따라서 그 기능을 유감없이 수행하는 가치관을 옳은 가치관이라고 부른다면, 현대 한국인을 위하여 바람직한 가치관은 한국인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위의 처방을 지시해주는 가치관으로(김상원, 1975), 이러한 가치관의 형성은 개인의 타고난 인성(personality) 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가 속한 문화, 환경, 교육, 소속기관의 철학, 인간관계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나타낸다(Blomquist, Curise & Curise, 1980). 이와같이 가치관

은 인간행위의 전체(diverse universe)에서 중심(heart)이 되며, 문화, 사회, 인성, 태도, 행위에 관한 모든 연구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간호의 본질은 인도주의, 즉 인류애를 기초로 하여 인간을 돕는 것으로, 간호사는 인류애를 기초로 하여 인간에게 참다운 봉사를 하기 위해 꾸준하게 참간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양질의 간호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참간호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이 확립되어야 한다(이영숙, 1990). 그러나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질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빠른 속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신념이나 삶의 가치 또는 직업적 신념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여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개인의 특성, 인간에 대한 가치를 변화시키고 윤리적인 가치에도 변화를 가져오는 등의 가치관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간호는 사회의 변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건강의 개념과 건강전문직에 대한 사회적 기대의 변화에 따라 지식과 기술은 많은 성장을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간호이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변창자, 1983). 간호사들은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윤리적 갈등을 느끼면서 일해야 하며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환자와 상담하고 가장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고민해야 하는 위

* 본 논문은 1998년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서 간호전문직도 인간애를 기초로한 전인격적 간호라는 본래의 궁극적 목적과 정신을 잃어버리고 차츰 범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간호사들의 윤리적 가치관 또한 흔들리고 있다(이영숙, 1990). 따라서, 생명의 존엄성이 경시되고 영리를 추구하게 되는 현 사회속에서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가치관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올바른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하고, 윤리적 가치관과 제 특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 1) 인간생명에 관한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한다.
- 2) 간호사와 대상자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한다.
- 3) 간호사와 간호업무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한다.
- 4) 간호사와 협동자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을 파악한다.
- 5)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관련된 변수를 규명한다.

3. 용어의 정의

- 1) **윤리적 가치관**: 행동방향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바람직한 것 또는 해야 할 것에 대한 일반적 생각 또는 개념으로(정범모, 1984), 본 연구에서는 이영숙(1988)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영숙(1990)이 고안한 질문지에 의해서 간호업무 행위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는 도덕적으로 옳은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신념에 관하여 조사된 내용을 말한다.
- 2) **의무주의**: 규칙에 의거한 도덕이론 혹은 법치론적 접근방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며 지켜야 할 절대가치가 있음을 전제하며, 결과보다는 취해진 행동의 형태나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론이다(황응연, 1975).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가치관의 점수가 높을수록 의무주의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공리주의**: 이타주의적 결과주의이면서 비채락주의적 형태를 말하는데, 모든 도덕적 판단의 결정기준은

행동의 결과에 의한다는 이론이다(박정호, 김매자 및 이선옥, 1989).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가치관의 점수가 낮을수록 공리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부산시내 일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

II. 문헌 고찰

1. 간호윤리

간호윤리란 간호사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를 실천하는 것으로서, 법이나 어떤 규칙, 도는 형식도덕 등으로 부터 자유로운 자발적 의지의 실천행위이다. 즉, 간호전문 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행위규범으로써 국가와 사회와 국민관계에서 ‘간호’라는 실존의 가치성과 당위성, 그리고 공리성이 인정되는 존재방식을 실천하지 않으면 실존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호행위는 윤리적 행위이어야 하고 아울러, 간호현장에서 주어진 대상, 환경, 조건, 상황에 따라 간호사 각자가 선의지(善意志)의 유익적 행동이 행해질 때, 사회와 대중으로부터 지지와 승인이 주어진다. 다시말해 법률과 도덕에 앞서 간호사가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로서, 법적인 제재나 도덕적인 비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직업윤리라 할 수 있다(변창자, 1986; 한성숙, 1994).

윤리에는 크게 두가지 범주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보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규범을 다루는 일반원리 즉 옳고 그르다는 것이 무엇이며 선과 악이 무엇인지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영역이며 다른 하나는 특정분야의 규범과 관련된 특수윤리이다. 윤리이론으로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의무이론과 공리이론이다(박성호, 김매자, 이선옥, 1989). 의무주의란 규칙에 의거한 도덕이론 혹은 법치론적 접근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며 지켜야 할 절대가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며 결과보다는 취해진 행동의 형태나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론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무론적 사고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생명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생명권이란 타인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우리가 타인들로부터 생명구조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공리주의란 이타주의적 결과주의이면서 비쾌락주의적 형태를 말하는데 모든 도덕적 판단의 결정기준은 행동의 결과에 의한다는 이론이다(박달, 1989). 결국 공리주의자들은 문제가 되는 생명의 비중을 평가하여 계속적인 생존이 사회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나타내는 자의 생명을 구할 것이고 의무론자들은 생명구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의무를 검토해서 구조되어야 할 최대의 권리를 갖는 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입장을 취한다(황응연, 1988). 그러나 개인의 윤리관이나 양심이 간호의 전문적 상황에 적용되기에는 너무 개별적이거나 주관적이며, 윤리강령들은 간략하고 일반적인 것이어서 실제 상황에서 간호사가 해야 할 바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간호사들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전문적 행위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는 간호윤리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필요하다.

2. 가치관

가치관은 여러가지 인간문제에 관해 바람직한 것 또는 하여야 할 것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또는 개념이며, 여러가지 선택 가능한 상태에서 보여주는 우선순위의 결정 또는 의사결정의 기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정범모, 1983). 또한 가치 혹은 가치관이란 개념은 태도, 욕구, 성격특성, 흥미, 동기 등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극상황에 대한 행동경향의 개인차를 고려함으로써 행동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변인으로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예언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임인재, 1964).

이등(1981)은 가치관이란 태도, 신념, 성격등과 함께 유전에 의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등 다양한 제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며, 태도, 가치와 함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를 지닌 것으로 가변성과 지속성의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도, 가치, 가치관은 모두 개인의 경험 및 학습을 통하여 내면화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말할때 태도, 가치, 가치관은 정당성, 선택 우선순위의 기준이 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권혁제과 남경현(1988)은 “가치관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장과정에 있어

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며, 가변성과 지속성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고, 행동의 기준, 선호의 기준 및 평가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가치관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가치관이란 첫째, 모든 관심의 대상으로 인간행동의 목표, 방향을 지시해주는 것이며 둘째, 인간의 욕구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셋째, 두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치의 중요한 기능으로는 첫째, 사회문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된다. 둘째, 한 특수한 정치적이거나 정신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해 다른 것보다 호감을 가지게 된다. 셋째,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기준이 된다. 넷째,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 판단하여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기준이 된다. 다섯째, 자기가 다른 사람처럼 도덕적이거나 유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어떤 타인의 신념, 태도, 가치, 행위가 도덕적이며 항의를 받을만 한가를 알려준다(이경혜, 1985). 간호의 가치관은 인도주의를 근본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질병의 예방, 재활, 봉사를 하는 정신력이며, 인내, 사랑, 이해등의 성숙한 정서와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태도를 통하여 직접적인 행위로 구체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인간됨이 간호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데(조현숙, 1995), 간호사가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인성특성이 중요하며 좋은 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 및 학습이 요구된다. 이와같이 임상에서 간호활동을 하는 간호사는 그가 가진 인성적 특성과 가정환경 그리고 학교교육을 통해 간호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거나 임상실무경험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2000년대를 맞이 하는 오늘날의 간호사는 급속한 사회문화의 변화와 국민의 다양한 건강요구를 충족하고 간호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어떠한 태도와 가치를 재형성해야 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50명으로 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을 조사하기 위해 이영숙(199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7문항, 간호직에 대한 태도 및 윤리관 2문항, 윤리의식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윤리의식 30문항은 생명의 존중에 관한 문제 9문항, 간호사와 대상자간의 관계영역에 관한 문제 9문항, 간호사와 전문직 업무 실제간의 관계영역에 관한 문제 8문항, 간호사와 협동자간의 관계영역에 관한 문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은 윤리적 측면의 두 범주 즉 의무론적 입장과 공리주의적 입장의 문항으로 입각하여 작성되었으며, 의무론적 입장의 문항에서는 “찬성” 5점, “대체로 찬성” 4점, “모르겠다” 3점, “대체로 반대” 2점, “반대” 1점을 주었고, 공리주의적 입장의 문항에서는 “찬성” 1점, “대체로 찬성” 2점, “모르겠다” 3점, “대체로 반대” 4점, “반대” 5점의 점수를 주어 윤리적 가치관의 점수를 계산하였다. 즉 절대적 공리주의 입장을 1점, 절대적 의무론적 입장은 5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의무론적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였다.

3.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1998년 6월 20일 부터 1998년 7월 20일까지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간호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본 연구자가 각 병동별로 직접 질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평균치, 표준편차 및 t-test, ANOVA, Pearson's r의 통계방법으로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 간호사의 연령은 평균 25.8세였으며, 연령의 범위는 21세~46세였다. 결혼상태는 기혼 58명(23.2%), 미혼 192명(76.8%)였으며, 교육정도는 간호전문대 졸업 216명(86.4%), 4년제 대학 졸업 24명(9.6%), 석사과정 재학

또는 졸업 10명(4.0%)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평균 3년 7개월이었으며, 근무경력의 범위는 최소 7개월에서 최고 16년 5개월까지였다. 근무분야는 내과계 55명(22.0%), 외과계 123명(49.2%), 산부인과 8명(3.2%), 소아과 25명(10.0%), 정신과 5명(2.0%), 기타 34명(13.6%)였다. 현재직위는 일반 간호사 197명(78.8%), 책임 간호사 41명(6.4%), 수간호사 12명(4.8%)순이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121명(48.4%)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 54명(21.6%), 불교 50명(20.0%), 카톨릭교 24명(9.6%), 기타 1명(0.4%)순으로 나타났고, 종교생활에 관한 참여도는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178명(71.2%)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열심히 하는 경우 49명(19.6%),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 23명(9.2%)순이었다.

2. 간호 전문직에 대한 태도와 윤리관

간호사의 간호 전문직에 대한 태도와 윤리관을 보면 <표 1>와 같다. 간호직에 대한 태도에서 “가정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 보장된 직업이다”라고 대답한 경우가 178명(71.2%), “결혼 전까지의 잠정적 직업이다” 33명(13.2%), “가능하면 간호직을 떠날 것이다” 22명(8.8%), “최고의 생업이다” 17명(6.8%)로 많은 수의 간호사가 긍정적으로 간호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호직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바탕으로 전문직으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사실로서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간호직을 전문직으로 생각하지 않는 간호사들은 22%로 나타나 이들이 간호실무에 있어 전문직 간호사로서 행동하고 나아가 간호 전문직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윤리적 기준에 대해 “가끔 혼동된다” 135명(54.0%), “매우 확고하다” 72명(28.8%), “상황에 따라 바뀐다” 43명(17.2%)로 나타나, 가끔 혼동되거나 상황에 따라 바뀐다고 답한 경우가 71.2%를 나타냈는데, 윤리는 일반적 모든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간호사들이 일상적으로 내리는 책임있는 결정은 윤리에 바탕을 두고 있어 윤리적 선택은 전문적인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로(한성숙, 1994), 대상자들이 윤리적 기준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리라 본다. 윤리적 기준이 바뀌게 된 일반적인 동기는 “간호상황에 적응하기 위함” 139명(55.6%), “기관의 정책이나 기준에 의함” 54명(21.6%), “환자의 요구

에 의함” 27명(10.8%), “잘모르겠다” 20명(8.0%), “상관의 요구에 의함” 7명(2.8%), “의사의 요구에 의함” 3명(1.2%)로 나타나, 간호사 자신의 행동을 포함하여 자신이 존재하는 상황에 만연해 있는 관습과 금기에 기거

이 의문을 제기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실천의 기준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1〉 대상자의 간호직에 대한 태도와 윤리관 (N=250)

간호직에 대한 태도와 윤리관	구분	N	%
간호직에 대한 태도	최고의 생업이다	17	6.8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는 한 보장된 직업이다	178	71.2
	결혼전까지의 잠정적 직업이다	33	13.2
	가능하면 간호직을 떠날 것이다	22	8.8
윤리적 기준	매우 확고하다	72	28.8
	가끔 흔들린다	135	54.0
	상황에 따라 바뀐다	43	17.2
윤리적 기준이 바뀌게 되는 일반적 동기	기관의 정책이나 기준에 의함	54	21.6
	간호상황에 적응하기 위함	139	55.6
	환자의 요구에 의함	27	10.8
	의사의 요구에 의함	3	1.2
	상관의 요구에 의함	7	2.8
	잘모르겠다	20	8.0

3.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

1) 간호사의 인간생명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사의 인간생명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을 보면 〈표 2〉, 최대평점 5점에 대해 평균점수는 2.85점으로 나타났다으며 최저 1.44점, 최고 4.22점으로 공리주의에 가까운 특성을 나타내 이(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들이 모든 인간 생명을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어떤 생명이 계속 생존하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에 의거해서 각 생명을 다른 생명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 인간생명 관계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점수 (N=250)

최대평점	최저점수	최고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5	1.44	4.22	2.85	.032

문항별로 분석해보면〈표 3〉, 가장 의무론적인 입장을 보이는 항목은 “질병말기에 환자에게 연구목적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76점으로 67.2%의 간호사가 반

대입장을 나타내는데, 이는 간호사들이 인간생명에 대해 신이 인간에게 준 고귀한 것으로 인간이 함부로 생사를 결정하는 것은 신에게만 속해 있는 생사의 통치자 역할을 인간이 선취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가장 공리주의적 입장을 부이고 있는 항목은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여 생명연장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31점으로 80%의 간호사가 찬성입장을 나타내어, 간호사들이 모든 인간 생명을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이 노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를 생존하게 돕고 품위있게 죽는 것이 환자의 합당한 선택일 경우에는 죽음을 돕는 태도로, 현재 뇌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있는 태도라 볼 수 있다.

2)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점수는 최대평점 5점에 대해 3.23점으로, 최저 2.00점, 최고 4.55점으로 나타나 다소 의무론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며〈표 4〉, 이는 간호사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환자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며 지켜주어야 할 절대값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간호사는 그 역할과 건강관리 체계의 변화에서 발생

〈표 3〉 간호사의 인간생명 관계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문항별 응답 분포와 평균점수 (N=250, 실수(%))

문항	찬성	대체로 찬성	모르겠다	대체로 반대	반대	평균점수	표준편차
1.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때, 환자의 뜻을 받아 들여 생명연장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67 (26.8)	108 (43.2)	21 (8.4)	37 (14.8)	17 (6.8)	2.31	0.07
2. 환자가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안락사를 요구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59 (23.6)	95 (38.0)	31 (12.4)	43 (17.2)	22 (8.8)	2.49	0.08
3. 가족이 원하는 경우에 인공 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는 무의식 환자의 인공 호흡기 작동을 중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7 (14.8)	116 (46.4)	31 (12.4)	49 (19.6)	17 (6.8)	2.57	0.07
4. 살 가망이 없는 환자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2 (12.8)	-	49 (19.6)	87 (34.8)	26 (10.4)	3.07	0.07
5.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때, 응급 수술이 실시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58 (23.2)	76 (30.4)	27 (10.8)	66 (26.4)	23 (9.2)	2.68	0.08
6. 심한 선천성 기형으로 살 가망이 없는 신생아가 있을 경우 가능한 모든방법을 사용하여 생명연장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5 (14.0)	52 (20.8)	49 (19.6)	84 (33.6)	30 (12.0)	3.08	0.08
7. 질병 말기 환자에게 연구목적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 (5.6)	27 (10.8)	41 (16.4)	91 (36.4)	77 (30.8)	3.76	0.07
8. 임신중절은 생명존중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실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32 (12.8)	66 (26.4)	45 (18.0)	77 (30.8)	30 (12.0)	3.02	0.07
9. 임신중절은 생명존중에 위배되지만 양육능력이 없는 미혼 모의 경우에는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2 (16.8)	95 (38.0)	37 (14.8)	49 (19.6)	27 (10.8)	2.69	0.08

한 많은 윤리적 갈등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고개, 병원, 의사, 간호사 그리고 그밖의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발생하는데(한성숙, 1990),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대상자와의 관계에서 다소 의무론적 입장이지만 중립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다양한 임상환경에서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간호사의 가치관은 그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것은 바로 환자간호와 직결되므로 간호사가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인성특성이 중요하며 좋은 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 및 학습이 요구된다.

〈표 4〉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점수 (N=250)

최대평점	최저점수	최고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5	2.00	4.55	3.23	.027

문항별로 분석해보면〈표 5〉, 가장 의무론적인 입장을 보이는 항목은 “간호사는 환자가 자신이 자살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청할 경우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40점으로 88.8

%의 간호사가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에 대해 자살의 문제는 신에 대한 잘못으로 생각하여 신이 우리에게 준 고귀한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다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하는 매우 의무론적 입장으로, 이영숙(1990)의 연구에서 가장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인 것과 아주 대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가장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이는 항목은 “환자가 원하면 환자에게 약물치료나 음식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72점으로 88.8%의 간호사가 찬성하는 입장을 나타내, 환자에게는 항상 거짓없이 진실만을 말해야 할 의무와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어 환자의 가치관에 근거한 결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입장을 보였다.

3) 간호사와 간호업무 관계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사와 간호업무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점수는 최대평점 5점에 대해 3.15점으로, 최저 2.25점, 최고 4.25점으로 약간 의무론적 입장을 보여〈표 6〉, 이영숙(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며 지켜가야 할 가치가 있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

〈표 5〉 간호사의 대상자 관계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문항별 응답분포와 평균점수 (N=250, 실수(%))

문항	찬성	대체로 찬성	모르겠다	대체로 반대	반대	평균점수	표준편차
1. 간호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의견이 환자의 의견과 맞지 않는 경우에 환자가 간호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11 (4.4)	84 (33.6)	47 (18.8)	81 (32.4)	27 (10.8)	3.11	0.07
2. 환자가 종교적인 금기때문에 간호를 거부할 때, 간호사는 환자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0 (8.0)	85 (34.0)	30 (12.0)	81 (32.4)	34 (13.6)	3.09	0.07
3. 간호사는 환자가 자신이 자살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주면 서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청할 경우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4.0)	6 (2.4)	12 (4.8)	66 (26.4)	156 (62.4)	4.40	0.06
4. 환자가 원하면 환자에게 약물치로나 음식에 관한 정보를 얻 제든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0 (48.0)	102 (40.8)	12 (4.8)	12 (4.8)	4 (1.6)	1.72	0.06
5. 살 가치가 없는 환자에게 진단이나 예후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9 (3.6)	43 (17.2)	41 (16.4)	99 (39.6)	58 (23.2)	3.61	0.07
6. 사고로 인해 거의 사망에 가까운 상태에 이를 경우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가족에게 양호한 상태라고 말해 안심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 (1.2)	16 (6.4)	17 (6.8)	95 (38.0)	119 (47.6)	4.24	0.05
7. 환자가 매우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에도 간호사는 예의를 갖추어 최선의 간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8 (23.2)	113 (45.2)	24 (9.6)	42 (16.8)	13 (5.2)	2.35	0.07
8. 너무 지나치게 여러가지 요구를 하는 환자는 문제환자이므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8 (3.2)	58 (23.2)	30 (12.0)	118 (47.2)	36 (14.4)	3.46	0.06
9. 환자가 약에 대해서 물을때 환자에게 알려줌으로써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면 올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5 (10.0)	82 (32.8)	36 (14.4)	65 (26.0)	42 (16.8)	3.06	0.08

지는 생명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전문직 간호사로서 책임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표 6〉 간호사와 간호업무 관계영역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점수 (N=250)

최대평점	최저점수	최고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5	2.25	4.25	3.15	.023

문항별로 분석해 보면〈표 7〉, 가장 의무론적 입장을 보이는 항목은 “의사의 처방에 과오가 의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는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63점으로, 간호사의 96%가 반대하고 있어, 의사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에 우선적인 비중을 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은 점차 의료와 기관의 목표 그리고 양질의 간호목표 사이에서 더욱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 즉, 간호사들은 환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가지며 동시에 의사와 자신이 속한 기관에 대한 의무와 더불어 복합적이며 다원적인 윤리적 책임 상황하에 직면하므로(Davis &

Aroskar, 1983 ; Holly, 1986), 간호사가 복합적인 윤리적 의무에 연루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한편, 가장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이는 항목은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얼른 달려가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2점으로 간호사의 90.4%가 찬성을 나타내, 이 영숙(1990)의 의무론적 입장과는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리라 사려된다.

4)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점수는 최대평점 5점에 대해 3.04점으로, 최저 1.75점, 최고 5.00점으로 다소 의무론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표 8〉. 간호사는 고객, 병원, 의사, 간호사, 그밖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윤리적 갈등에 부딪히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다소 의무론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건강관리 체계의 구성원보다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 간호사와 간호업무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문항별 응답분포와 평균점수

(N=250, 실수(%))

문항	찬성	대체로 찬성	모르겠다	대체로 반대	반대	평균점수	표준편차
1. 의사의 처방에 과오가 의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는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 (0.8)	4 (1.6)	4 (1.6)	63 (25.2)	177 (70.8)	4.63	0.04
2. 환자보호를 위해서라면 억제대는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9 (19.6)	135 (54.0)	19 (7.6)	33 (13.2)	14 (5.6)	2.31	0.07
3.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경우, 치료해도 불구가 되는 중환자보다 재활이 가능한 경환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5 (14.0)	68 (27.2)	47 (18.8)	65 (26.0)	35 (14.0)	2.98	0.08
4. 처치를 잘못했으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고 그것이 자기만 알고 있는 실수이면 보고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 (0.8)	14 (5.6)	31 (12.4)	108 (43.2)	95 (38.0)	4.12	0.05
5.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얼른 달려가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23 (49.2)	103 (41.2)	21 (8.4)	2 (0.8)	1 (0.4)	1.62	0.04
6. 간호사는 봉사직이므로 파업을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33 (13.2)	53 (21.3)	59 (23.6)	66 (26.4)	39 (15.6)	3.10	0.08
7. 환자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위약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 (0.4)	5 (2.0)	13 (5.2)	92 (36.8)	139 (55.6)	4.45	0.04
8. 환자가 진통제를 맞은지 2시간이 되었는데 또 진통제를 요구하도 다른 통증완화방법을 사용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위약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87 (34.8)	117 (46.8)	14 (5.6)	22 (8.8)	10 (4.0)	2.00	0.06

〈표 8〉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영역 윤리적 가치관의 평균점수 (N=250)

최대평점	최저점수	최고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5	1.75	5.00	3.04	.028

문항별로 분석해 보면〈표 9〉, 가장 의무론적 입장을 보이는 항목은 “업무도중 동료 간호사의 실수를 발견한다면 모른 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28점으로 간호사의 89.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료간의 관계보다는 환자의 생명이 우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장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이는 항목은 “동료 간호사가 처치중 무균술을 지키지 않을 때 즉시 그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63점으로 간호사의 92.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료간의 실수를 묵인해 주기 보다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충고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영숙(1990)의 연구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의무론적 입장을 나타내었지만 본 연구에서 의무론적 입장과 공리주의적 입장이 함께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4.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제변수와의 관계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제 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표 10〉과 같다.

간호사의 간호직에 대한 태도와 윤리관은 연령($r = -.2905$), 결혼상태($t = -4.09$), 근무경력($F = 4.692$), 현재직위($F = 11.860$)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의무론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결혼상태는 미혼인 경우가 기혼인 경우보다 의무론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근무경력도 근무경력이 적을수록 의무론적 입장을 보였으며 현재직위는 직위가 낮을수록 더 의무론적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간호직에 대한 태도와 윤리관은 연령이 어릴수록 의무론적 입장을 보였으며 미혼인 경우, 근무경력이 적은 경우, 현재직위가 낮은 경우에 더 의무론적인 입장을 나타내어, 임상에서의 실무경험에 있어 간호직에 대한 윤리적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으로 사려되며,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해 간호 윤리에 대한 탐색과 철학적 전망이 간호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생명 영역과 제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연령($r = .3318$), 결혼상태($t = 3.46$), 근무경력($F = 10.997$), 현재직위($F = 21.113$)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나이가 많을수록 의무론적 입장을 보였으며, 기혼인 경우,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의무론적 입장을 보였으며, 내과, 소아과의

<표 9>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문항별 응답분포와 평균점수 (N=250, 실수(%))

문항	찬성	대체로 찬성	모르겠다	대체로 반대	반대	평균점수	표준편차
1. 동료 간호사가 처치중 무균술을 지키지 않을 때 즉시 그에 게 충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29 (51.6)	102 (40.8)	5 (2.0)	10 (4.0)	4 (1.6)	1.63	0.05
2. 의사나 동료 간호사가 간호기록의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 청한다면 이에 따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 (1.6)	12 (4.8)	36 (14.4)	98 (39.2)	100 (40.0)	4.11	0.05
3. 업무중 동료 간호사의 실수를 발견한다면 모든 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 (1.2)	10 (4.0)	13 (5.2)	112 (44.8)	112 (44.8)	4.28	0.05
4. 당신이 수간호사로 지목되고 있으나 친구가 수간호사에 더 적임자인 경우에 감독 간호사에게 친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72 (28.8)	95 (38.0)	62 (24.8)	10 (4.0)	11 (4.4)	2.17	0.06

<표 10> 각 영역과 일반적 특성과의 관계 (N=250, 실수(%))

제 변 수	구 분	실수	평균 점수	간호직에 대한 태도와 윤리관	영역 (F, t, r 값)			
					인간생명영역	대상자관계	간호업무관계	협동자관계
연령(단)	21-24세	123	49.2	$r = -.2905^{**}$	$r = .3318^{***}$	$r = .1525^{**}$	$r = .0013$	$r = .1035$
	25-29세	91	36.4					
	30-34세	19	7.6					
	35-39세	8	3.2					
	40-44세	8	3.2					
	45세 이상	1	0.4					
교 육	간호전문대졸	216	86.4	$F = .065$	$F = 2.162$	$F = 2.350$	$F = 0.366$	$F = 1.037$
	4년제대학(학과)졸	24	9.6					
	석사과정 재학(졸)	10	4.0					
결혼상태	기 혼	58	23.2	$t = -4.09^{***}$	$t = 3.46^{***}$	$t = 2.59^*$	$t = 0.47$	$t = 1.73$
	미 혼	192	76.8					
근무경력	1년미만	48	19.2	$F = 4.692$	$F = 10.997^*$	$F = 1.718$	$F = 0.558$	$F = 1.276$
	1년이상 4년미만	111	44.4					
	4년이상 7년미만	62	24.8					
	7년이상 10년미만	3	1.2					
	10년이상	26	10.4					
근무분야	내과계	55	22.0	$F = 1.129$	$F = 2.432^*$	$F = 0.988$	$F = 1.775$	$F = 1.571$
	외과계	123	49.2					
	산부인과	8	3.2					
	소아과	25	10.0					
	정신과	5	2.0					
	기타	34	13.6					
현재 직위	일반간호사	197	78.8	$F = 11.860^{***}$	$F = 21.113^*$	$F = 3.069^*$	$F = 0.380$	$F = 1.812$
	책임간호사	41	16.4					
	수간호사	12	4.8					
종 교	기독교	55	21.6	$F = 1.307$	$F = 1.396$	$F = 0.774$	$F = 0.940$	$F = 2.312^*$
	카톨릭교	24	9.6					
	불 교	50	20.0					
	무 교	121	48.4					
	기 타	1	0.4					
종교생활 참여도	대체로 열심히 함	49	19.6	$F = 0.032$	$F = 1.690$	$F = 0.171$	$F = 0.212$	$F = 2.140$
	형식적으로 함	23	9.2					
	거의 하지 않음	178	7.2					

*P<.05 **P<.01 ***P<.001

경우와 직위가 높을수록 의무론적 입장을 보였다. 대상자 관계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는 연령($r=.1525$), 결혼상태($t=2.59$), 현재직위($F=3.069$)에서 차이를 나타내, 나이가 많을수록, 기혼인 경우, 직위가 높을수록 더 의무론적 입장을 나타내었다. 간호업무 관계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를 보면 모든 제변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협동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를 보면 종교($F=2.312$)에서만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불교인 경우 다른 종교를 믿는 간호사보다 더 의무론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직에 대한 태도 및 윤리관과 각 영역별 윤리적 가치관에 있어 간호업무 관계영역을 제외하고는 연령, 결혼상태, 현재직위에 따라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간호사의 긍정적이고 확고한 윤리관의 확립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본 연구 결과를 학습 및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임상실무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윤리적 가치관을 알아보기 위해 1998년 6월 20일 부터 7월 20일 까지 부산시내 일브 대학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5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와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

(1) 인간생명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사의 인간생명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은 최대평점 5점에 대해 평균점수 2.85점으로 공리주의에 가까운 특성을 나타내었다. 문항중 가장 의무론적 입장을 보이는 항목은 “질병말기에 환자에게 연구목적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76점이었으며, 가장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이는 항목은 “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환자의 뜻을 받아들여 생명연장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31점이었다.

(2)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사와 대상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은 최대평점 5점에 대해 평균점수 3.23점으로 다른 의무론적 입장을 나타냈다. 문항중 가장 의무론적 입장을 나타낸 항목은 “간호사는 환자가 자신이 자살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려주면서 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청한 경우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40점이었으며, 가장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이는 항목은 “환자가 원하면 환자에게 약물치료와 음식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72점이었다.

(3) 간호사와 간호업무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사와 간호업무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은 최대평점 5점에 대해 평균점수 3.15점으로 다소 의무론적 입장을 보였다. 문항중 가장 의무론적 입장을 보이는 항목은 “의사의 처방에 과오가 의심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63점이었으며, 가장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이는 항목은 “길을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얼른 달려가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62점이었다.

(4)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

간호사와 협동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은 최대평점 5점에 대해 평균점수 3.04점으로 다소 의무론적 입장을 보였다. 문항중 가장 의무론적 입장을 보이는 항목은 “업무도중 동료 간호사의 실수를 발견한다면 모른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4.28점이었으며, 가장 공리주의적 입장을 보이는 항목은 “동료 간호사가 처치중 무균술을 지키지 않을 때 즉시 그에게 충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1.63점이었다. 따라서 인간생명 관계영역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의무론적 경향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제변수와의 관계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과 제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간호사의 간호직에 대한 윤리관은 연령($r=-.2905$), 결혼상태($t=-4.09$), 근무경력($F=4.692$), 현재직위($F=11.860$)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인간생명영역과 제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연령($r=.3318$), 결혼상태($t=3.46$), 근무경력($F=10.997$), 현재직위($F=21.113$)에서 차이를 보였다. 대상자 관계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는 연령($r=.1525$), 결혼상태($t=2.59$), 현재직위($F=3.069$)에서 차이를 나타냈으며, 간호업무 관계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은 모든 제변수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협동자 관계 영역의 윤리적 가치관의 차이를 보면 종교($F=2.312$)에서만 차이를 나타내었다.

2. 제 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 1)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차이점이 발견되었으므로 동일한 도구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 2) 본 연구에서 기존의 연구와 일치되는 점은 실제 임상에서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의 확립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김상원 (1975). 교원의 교직 가치관에 관한 계층적 비교 연구. 교육학연구, 13(3), 68-75, 249-270.

김수지 (1979). 대한간호, 18(2), p33.

권혁제, 남경현 (1988). 춘천교육대학 신입생들의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학생지도연구, 13, 1-13.

박정호, 김매자, 이선옥 (1989). 간호학 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변창자 (1986). 간호업무와 간호윤리, 간호 전문직 발전과 전망. 대한 간호협회, 323-333.

이경혜 (1984). 간호의 중심개념 교육프로그램의 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경혜, 방희숙, 왕임순 (1995). 임상 간호사들의 가치관 및 가치성향에 대한 연구. 간호학회지, 25(2), 281-284.

이영숙 (1990).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연구. 대한 간호학회지, 20(2).

이원희 (1988).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27(5), 79-86.

이재창 (1981). 청소년 문제 종합진단연구. 한국 교육개발원.

임인재 (1964). 가치관 검사의 재표준화 연구. 학생연구, 3(1).

장영선 (1990). 임상 간호사의 직업에 대한 윤리적 가치 인식 정도와 직무 만족도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범모 (1984). 가치관과 교육. 서울: 박영사.

간호사의 가치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9(1), 34-36.

한성숙 (1994). 간호윤리 정립의 필요성. 대한간호, 33(2), 19-24.

황용연 (1975). 대학생의 가치관 및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 익문사.

A. Jameton, P. hall (1984). Nursing Practice, The ethical issues. New Jersey: Englewood Cliffs.

Austin, H. (1984). Ethics. AORN, 39(6), 951-953.

Bloquist, Curise & Curise (1980). Value of baccalureate nursing students in secular and religious schools. Nursing Research, 29(6), 379-383.

Davis, Aroskar (1983). Ethical dilemmas and nursing practice. Connecticut: Appleton-Century Crofts.

Payton, R. J. (1984). Ethics : ethics technology, change, relationships, create modern dilemmas. AORN, 39(1), 101-105.

S. J. Smith, A. J. Davis (1985). A program for nursing ethics. Int. J. Nurs. Stud., 22(4), 335-339.

- Abstract -

Key concept : Ethical value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Sung, Mi H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are deontological or utilitarian. Nurse's ethical valu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from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nterview of nurses in the clinical settings.

Ethical problems are categorized into four areas

- 1) human life
- 2) nurse-patient relationship
- 3) nurse-nursing task relationship
- 4) nurse-colleague relationship

The data were obtained from 250 nurses in the clinical settings from Jun. to July in 1998 using the ethical value questionnaire developed by Lee(1990).

The analysis of data was done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test and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The ethical values of human life slightly took up the position of utilitarian.

*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2. The ethical value of nurse-patient relationship slightly took up the deontological position.
3. The ethical value of nurse-nursing task relationship slightly took up the deontological position.
4. The ethical value of nurse-colleague relationship greatly took up the deontological position.

5. The ethical values of nurses related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age, marital status, positi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new strategies and continuing education programs be established to help clinical nurses formulate higher ethical values.